

일본 경제 동향_2018년 2월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와 해외직접투자 수익)

< 목 차 >

I. 일본 경제 지표	1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2
1. 경기회복 6년째 계속	2
2. 무역수지 8개월 만에 적자 반전	6
3. 엔고·고주가·고금리	8
4. 해외직접투자 큰 폭 증가	10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1
1.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와 해외직접투자 수익	11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3
1. 대일 무역적자폭 축소	13
2. 4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급감	15
V. 참고 자료	16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16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5	2016	2017							2018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경기 동향지수(일치지수, 2010=100)	-	-	-	-	-	-	116.4	117.9	120.7	-
GDP증가율(연율,%)	1.2	1.0	1.2	2.5	2.2	0.5p)	-	-	-	-
국내투자 (조엔)	민간설비투자	70.1	75.9	24.0	18.9	21.2	21.5p)	-	-	-
	공공투자	23.4	24.3	7.2	5.5	6.6	7.7p)	-	-	-
해외직접투자(조엔)*	70.0	68.2	20.8	10.3	11.5	13.1	4.2	3.1	5.8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기비	0.5	△0.3	0.3	0.2	-	0.3	0.1	0.0	-
	전년동기비	0.5	△0.3	0.2	0.4	-	0.8	0.9	0.9	-
실업률(%)	3.4	3.4	2.9	2.9	2.8	-	2.8	2.7	2.8	-
수출(조엔)	75.6	70.0	19.0	18.8	19.6	20.9	6.7	6.9	7.3	6.1
수입(조엔)	78.5	66.0	18.6	18.1	18.4	20.1	6.4	6.8	6.9	7.0
무역수지(조엔)	△2.9	4.1	0.4	0.7	1.2	0.8	0.3	0.1	0.4	-0.9
경상수지(조엔)	16.4	20.6	5.8	4.6	7.0	4.3	2.2	1.3	0.8	-
환율	달러	121.1	108.8	113.6	111.1	111.0	113.0	113.0	112.9	113.0
	원화(100엔)	935	1,068	1,015.7	1,020	1,020.3	1,001	1,002	979	961
금리(10년물,%)	0.36	△0.051	0.072	0.044	0.046	0.052	0.076	0.035	0.046	0.074
주가(닛케이)	19,203	16,920	19,241	19,503	19,880	22,187	21,267	22,525	22,770	23,712

주: p)는 1차 속보치 *실행액 기준,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경기판단) 경기회복 6년째 지속

○ '17.12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20.7로 전월비 2.8p 개선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제자리걸음

○ '17.12월 전월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

☐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9,434억 엔 적자

○ '18.1월 수출은 6조 856억 엔, 수입은 7조 290억 엔

☐ (환율) 엔저 반전

○ '18.1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10.8 엔으로 전월비 2.0% 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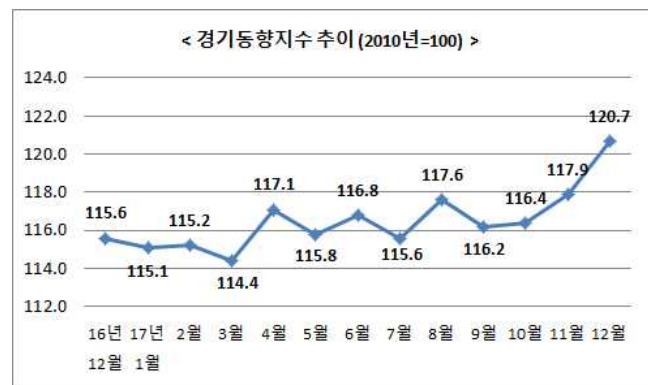
* '18.1월 엔/원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61원으로 전월비 0.1% 원고·엔저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기회복 6년째 지속

□ (경기기조 판단)

- 경기회복이 6년째 지속되고 있음
 - 세계경제의 확대로 기업의 생산과 출하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또 견조한 고용·소득 환경을 배경으로 소비도 완만히 회복되고 있음



자료 : 내각부

-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12월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 2010년 100)도 전월보다 2.8p 개선된 120.7을 기록. 198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일본내각부의 기조판단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다」를 유지
 - 전월과 비교할 수 있는 9개 지표 중 7개 지표가 개선된 가운데, 특히 세계적으로 반도체 제조장치와 건설 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투자재 출하의 지수가 크게 개선

□ (전 망)

- 앞으로 일본경제는 수출의 완만한 회복과 고용·소득환경의 개선을 배경으로 한 개인소비의 견조한 추이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여기에 12월 8일 발표된 신경제정책 패키지 등의 정책도 기여할 것임
 - 경제활동수준은 잠재성장량을 상회하여 추이할 전망
 - 수개월 이후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107.9으로 전월보다 0.3p 하락
- 그러나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과 실질임금이 부진한 가계간에 온도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GDP>

- 일본 내각부가 2월 14일 발표한 2017년 4분기 GDP(1차 속보치)는 전기비 실질 0.1% 증가, 연율환산으로는 0.5% 증가
 - 플러스 성장은 8분기 연속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를 배경으로 기업부문이 견인, 개인소비도 부진에서 벗어남
- 성장기여도는 내수가 0.1%, 외수는 -0.03% 기여함
 - 내수의 견인 요인은 기업부문으로 설비투자가 전기비 0.7% 증가, 5분기 연속 증가했으며 공작기계가 특히 호조를 보임
 - 개인소비도 0.5% 증가, 장마 등 기후불순의 영향으로 부진했던 전기의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2분기만에 플러스로 회복함. 휴대전화와 자동차, 음식서비스가 증가에 기여함
 - 신설주택 착공이 감소한 민간주택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의 효과가 축소된 공공투자 모두 2분기 연속 감소함
 - 마이너스의 외수기여도에서는, 수입이 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스마트폰과 호주 등으로 부터의 연료수입 증가로 2.9% 증가함
 - 수출은 반도체 제조장치와 자동차의 대아시아 수출호조로 2.4% 증가함
- 한편, 2017년 실질 GDP는 전년비 1.6% 증가로 6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내수, 외수 모두 플러스 성장에 기여함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분	2015	2016	2016				2017			
			1-3월	4-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전기비			0.5	0.3	0.2	0.4	0.3	0.6	0.6	0.1p)
전기비연율	1.2	1.0	2.1	1.4	0.8	1.8	1.2	2.5	2.2	0.5p)
전년동기비			0.6	0.7	0.9	1.5	1.4	1.5	1.9	1.5p)

자료: 내각부, p)는 1차 속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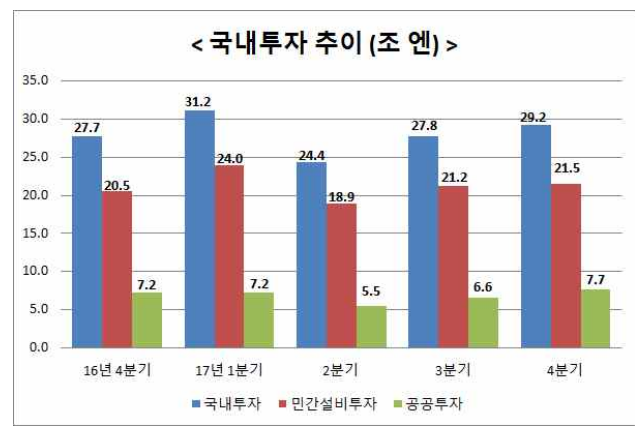
<국내 투자>

□ '17.4분기 국내투자, GDP의 20.5%

- '17.4분기 국내투자(민간설비투자+ 공공투자: 명목기준)규모는 전기비 5.2% 증가한 29.2조 엔으로 GDP의 20.5%

□ (민간설비투자)

- '17.4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21.5조 엔, 국내투자의 73.5%를 차지
- 일본은행의 단기경제관측조사(2017년 12월 조사)에 의하면, 전 산업의 2017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의 설비투자판단은 부족감이 보임
- 앞으로 설비투자는 기업수익의 개선, 성장분야에 대한 대응 등을 배경으로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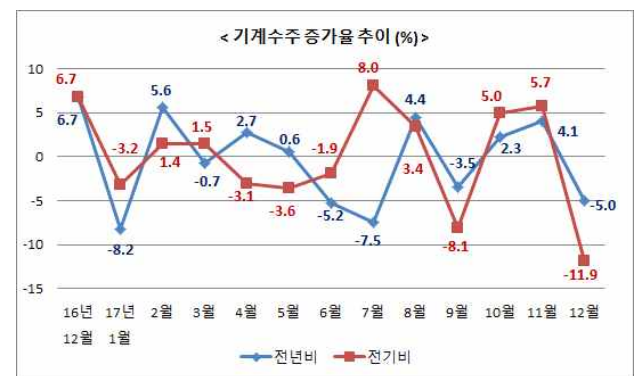


자료 : 내각부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12월 기계 수주(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수)는 전월비 11.9% 감소했으며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감소

□ (공공투자)

- '17.4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7.7조 엔으로 국내투자의 26.5%를 차지
- 공공투자는 건조하게 추이하고 있음
 - '18.1월의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비 11.5% 감소, '17.12월의 공공 공사 거래액은 전월비 1.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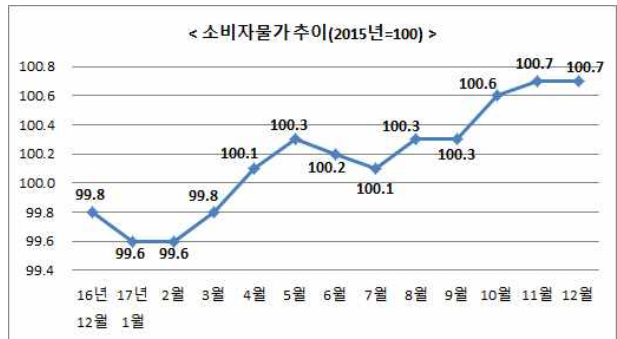
자료 : 경산성, 내각부

- 2017년 12월 8일 각의에서 결정된 신경제정책 등이 공공투자의 확대에 이어질 전망

<소비자물가>

□ '17.12월 소비자물가 제자리 걸음

- '17.12월 소비자 물가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100.7(2015년=100)로 전월비 0.0% 상승
- 전년동월비로는 0.9% 상승, 원유가격상승의 영향으로 에너지가격이 상승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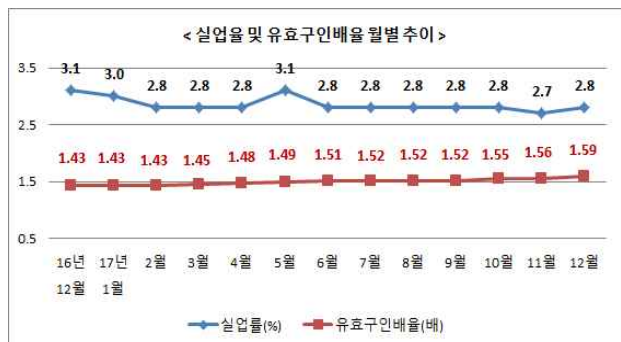
자료 : 총무성

-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배경으로 완만하게나마 상승폭(전년동월비)이 확대될 전망

<실업률>

□ 고용사정 개선 지속

- '17.12월 완전 실업률은 전월보다 0.1%p 높은 2.8%를 기록
- 여전히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한 노동수급의 팽박이 6개월 연속 낮은 수준으로 이어짐



자료 : 후생노동성

- 완전실업자 수는 186만명으로 전월보다 1만명 증가한 한편, 취업자 수는 6,551만명으로 7만명 감소
- '17.12월 유효구인배율도 1.59배로, 전월보다 0.03p 상승하여 최고수준을 기록
- 전반적으로 노동수급의 팽박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과 숙박업·음식서비스업, 운수, 우편업 분야에서 구인 수가 증가
- 기업의 구인 수는 증가하는 한편, 구직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일손부족감은 커지고 있으며 경기회복에 인구감소까지 겹쳐 완전고용 상태
- 일본 정부는 계속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특히 고령화를 배경으로 수요가 높은 의료·복지·서비스 분야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무역수지 8개월만에 적자 반전

(총 합) 수출부진으로 무역수지 적자

- '18.1월 무역수지는 수출이 크게 부진하여 9,434억 엔 적자로 8개월 만에 적자로 반전
 -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전월의 1,977 엔에서 5,786억 엔으로 크게 증가한 한편,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7,120억 엔에서 3,496억 엔으로 감소
 - 對 한국 무역수지흑자는 전월의 2,380억 엔에서 1,747억 엔으로 감소

< 2018년 1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

	2017.12월			2018.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 출	7.3	9.3	5.8	6.1	12.2	-16.4
수 입	6.9	14.9	1.5	7.0	7.9	1.5
수 지	0.4	-43.5	300.0	-0.9	-13.6	-

자료 : 재무성

□ (수 출) '18.1월 수출, 금액·물량 모두 감소

- '18.1월 수출은 전월비 16.4% 감소한 6조 856억 엔
 - 수출물량도 전월비 17.1% 감소
- 5대 수출 품목은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모든 품목의 수출이 감소
 - 자동차의 수출 감소폭이 전월비 -23.4%로 가장 큼

< 2018년 1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억 엔, %) >

순위	품목	2017.12월			2018.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자동차	11,158	15.3	8.4	8,650	6.7	-22.5
2	반도체 등 전자부품	3,739	7.0	18.8	3,096	5.9	-17.2
3	자동차부품	3,628	-0.3	19.0	2,778	6.9	-23.4
4	철강	3,064	16.7	34.9	2,748	10.0	-10.3
5	반도체 등 제조장치	2,699	17.8	13.9	2,276	22.4	-15.7

자료 : 재무성

○ 주요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도 모두 감소

- 미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전월비 -24.4%로 가장 큼

- 한국에 대한 수출은 전월비 11.8% 감소

< 2018년 1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억 엔, %) >

순위	국가	2017.12월			2018.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중국	15,072	15.8	9.2	11,600	30.8	-23.0
2	미국	14,114	3.0	3.1	10,665	1.2	-24.4
3	ASEAN	11,045	9.9	1.6	9,244	8.6	-16.3
4	EU	7,922	11.4	10.4	7,174	20.3	-9.4
5	한국	5,428	7.1	4.7	4,785	7.6	-11.8
6	대만	4,340	3.0	8.6	3,552	9.8	-18.2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입) '18.1월 금액은 증가, 물량은 감소

○ '18.1월 수입은 전월비 1.5% 증가한 7조 290억 엔

- 수입물량은 전월비 0.2% 감소

○ 5대 수입 품목에 반도체 등 전자부품 대신 의약품이 포함된 가운데, 의약품의 수입 증가폭이 30.3%로 가장 큼

- 수입감소품목 중에서는 원유의 수입감소폭이 -8.0%로 가장 큼

< 2018년 1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 엔, %) >

순위	품목	2017.12월			2018.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원유	7,735	28.8	22.0	7,113	9.7	-8.0
2	액화천연가스	3,775	16.7	27.1	4,162	11.5	10.3
3	통신기	3,595	55.8	-9.4	3,330	3.1	-7.4
4	의류·동부속품	2,485	4.4	-6.4	2,696	-10.3	8.5
5	의약품	1,996	-12.7	-5.4	2,601	25.3	30.3

자료 : 일본 재무성

- 주요 지역·국가로부터의 수입은 한국과 호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
 - 수입증가품목 중에서는 ASEAN으로부터의 수입 증가폭이 전월비 5.6%로 가장 큼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비 0.3% 감소

< 2018년 1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 엔, %) >

순위	국가	2017.12월			2018.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중국	17,049	14.8	-5.8	17,387	-3.3	2.0
2	ASEAN	10,191	16.3	-0.8	10,758	10.5	5.6
3	EU	7,864	9.8	2.5	8,182	18.3	4.0
4	미국	6,994	7.5	-1.3	7,170	9.4	2.5
5	호주	4,087	17.4	7.3	3,906	8.6	-4.4
7	한국	3,048	11.2	5.0	3,038	11.8	-0.3

자료 :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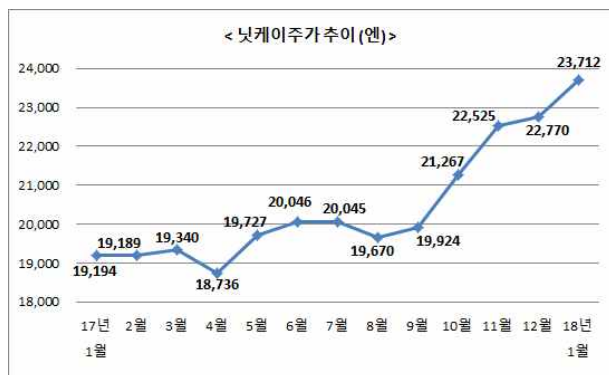
3.엔고 · 고주가 · 고금리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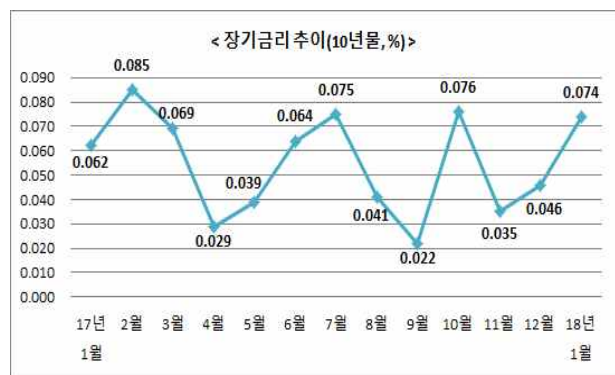
- '18.1월 평균 주가는 전월비 4.1% 상승한 23,712엔

□ (금 리)

- '18.1월 평균 10년 장기국채 금리는 전월비 60.9% 상승한 0.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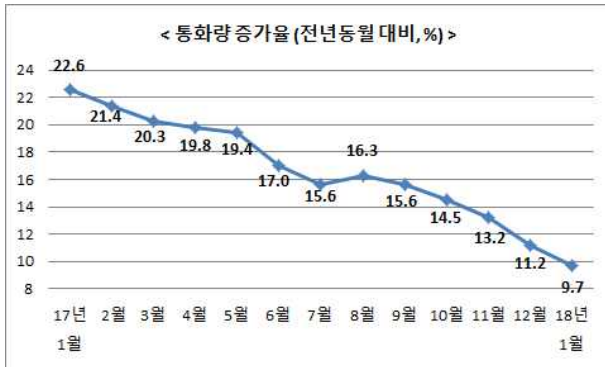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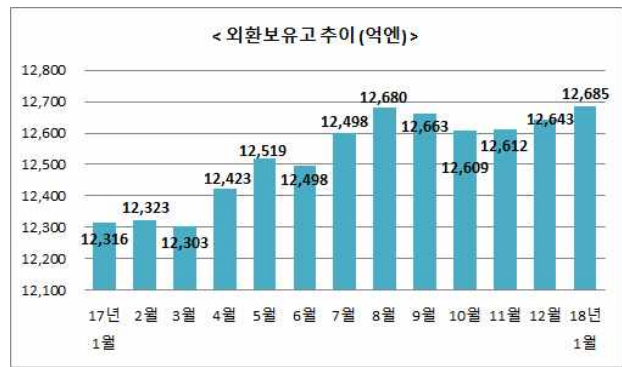
자료 :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 ‘18.1월 본원통화(머니리베이스 기준), 통화량 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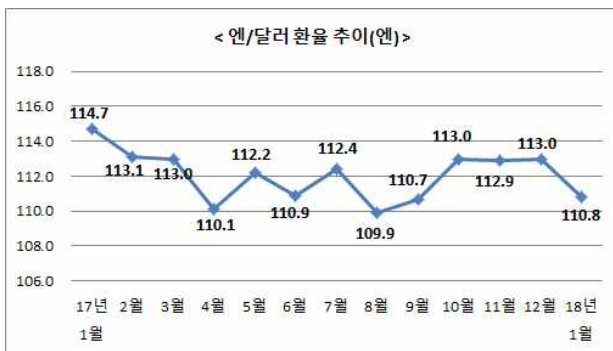
자료 :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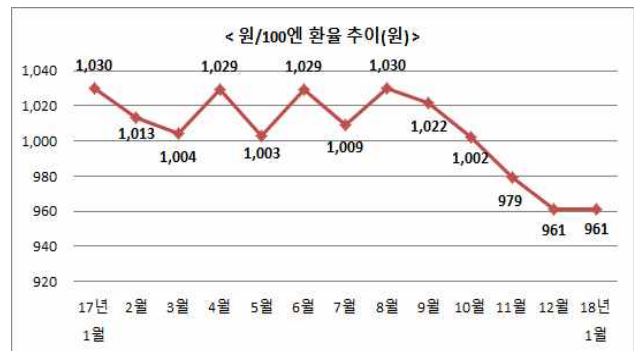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 (환율)

- ‘18.1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비 2.0% 상승한 110.8엔(엔고)
 - ‘18.2월 들어서는 109-106엔대로 엔고세가 가속, 2월 20일 현재 106.8엔(엔고)
- 최근 엔고세가 가속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평균주가와 미국의 주가지수선물 하락의 영향으로 투자가들의 리스크 회피적인 자세가 악화됨에 따라 엔매입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임
 - 그러나 일본의 금융완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엔고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희박
- ‘18.1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61원으로 전월의 961원에 비하여 0.1% 원고·엔저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4. 해외직접투자 큰 폭 증가

□ 최대 투자지역인 유럽·미국·유럽과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급증이 전체 해외직접 투자 증가를 주도

○ '17년 12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액은 58,290억 엔으로 전월비 87.0% 증가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

		2016	2017	2016		2017				
				3분기	4분기	3분기	4분기	10월	11월	12월
금 액		681,657	559,108	186,332	171,402	114,871	131,519	42,058	31,171	58,290
증가율	전기비	-2.1	35.0	45.9	-8.0	9.2	-12.7	-6.6	-25.9	87.0
	전년동기비	-2.1	35.0	5.8	-21.2	-38.4	-24.4	-22.3	-36.1	-18.0

자료 : 일본 재무성, 주 : 해외직접투자액은 실행액 기준 416901

○ 최대투자지역인 유럽 및 미국에 대한 투자가 각각 전월비 95.4%, 72.2% 증가

○ 특히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가 273.5%의 큰 폭 증가

○ 반면, 한국과 호주에 대한 투자는 감소

- 한국에 대한 투자는 249억엔으로 전월비 36.8% 감소

<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

국가별	2016		2017		2017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3분기		4분기		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대 세계	681,657	-1.7	559,108	-18.0	114,871	9.2	131,519	-12.7	58,290	87.0
아시아	80,321	-43.3	78,541	-2.2	21,355	12.1	24,751	15.9	11,522	75.9
중 국	13,076	-10.8	14,769	12.9	3,417	-8.2	3,144	-8.0	1,831	51.3
한 국	3,461	-26.6	4,112	18.8	1,280	24.8	924	-27.8	249	-36.8
북 미	181,747	-23.4	179,972	-1.0	42,975	8.4	44,895	4.5	20,317	70.9
미 국	176,406	-23.4	174,770	-1.0	41,689	7.9	43,908	5.3	19,972	72.2
중남미	36,110	58.7	25,249	-30.1	3,613	34.7	14,956	313.9	4,363	273.5
유 럽	366,263	35.8	242,030	-33.9	42,980	7.0	40,552	-5.6	20,096	95.4
대양주	12,925	-32.4	9,592	-25.8	1,994	33.9	2,730	36.9	606	-31.6
중 동	1,581	-12.4	2,923	84.9	281	6.8	1,432	409.6	68	36.0
아프리카	7,297	6.6	5,398	-26.0	1,673	-9.5	2,201	31.6	1,316	284.8

자료 : 일본 재무성, * 전기비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와 해외직접투자 수익

□ 경상수지 흑자 10년만에 높은 수준

- 일본재무성이 2월8일 발표한 2017년 국제수지 통계에 의하면 경상수지가 21조 8,742억엔 흑자로 전년비 7.5% 증가, 2007년 이후 10년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함
 - 경상수지 흑자액은 3년 연속 증가, 리먼쇼크 이전 2007년에 이은 수준임

□ 소득수지의 증가가 경상수지 흑자증가에 크게 기여

- 세계경제의 호조와 엔저를 배경으로 기업의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 소득수지가 견인차 역할을 했음
 - 기업의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나 투자수익에 해당하는 제 1차 소득수지의 증가가 경상수지 흑자증가에 기여함
 - 1차 소득수지는 흑자는 9.1%가 증가한 19조 7,397억엔으로 2015년에 이어 과거 두 번째 수준으로 경상수지흑자의 최대 비중을 점하고 있음
 - 한편 수송이나 여행, 금융 등 서비스거래의 수지를 나타내는 서비스수지는 7,061억엔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의 흑자는 1조 7,626억엔 흑자로 과거 최대임
 - 무역수지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로 전년비 10.8% 감소한 4조 9,308억엔의 흑자를 기록

□ 엔저도 직접투자수익의 증가에 기여

- 2017년 평균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달러당 112엔으로 2016년에 비하여 3엔 정도 엔저수준에서 추이함에 따라 달러표시로 받은 배당금 등의 환산액이 증가했음
- 제 1차 소득수지중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등의 직접투자수익의 흑자액(대외직접투자 수익에서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벌어들인 대내직접투자 수익을 차감) 20.8%가 증가한 8조 7,995억엔

□ 직접투자수익, 경상수지 흑자 증가에 견인차 역할

- 그 중에서도 해외자회사에 의한 수익을 나타내는 대외직접투자수익이 12조 7,191억엔으로 2016년에 비하여 20% 증가한 과거 최고수준을 기록함
- 직접투자수익의 증가는 기업이 인구감소 등을 고려하여 해외 성장시장을 예상하여 현지법인 등에서 직접 벌어들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임
 - 일본의 주력 135개사의 영업이익을 보면 2017년 3월기에 해외비율이 53%로 2007년 3월기보다 6%포인트 높아짐
- 일본이 해외를 상대로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는가를 보면, 수출이나 해외기업의 주식배당 등 증권투자수익이 여전히 주력이나 직접투자수익의 기여가 커지고 있음
 - 2007년 직접투자수익은 수출액의 6%이었으나 2017년에는 13%로 상승. 증권투자수익에 대해서는 34%에서 82%로 높아짐
 - 국제수지의 제 1차 소득수지는 직접투자수익과 증권투자수익으로 구성됨
 - 직접투자수익은 기업이 해외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출자비율이 10%이상인 자회사로부터 국내 모기업에 송금하는 배당금이나 현지에서의 재투자로 구성됨
 - 이에 비하여 증권투자 수익은 비자회사에 대한 투자에 의해 받은 배당이나 이자로 구성됨

□ 직접투자수익 증가에 아시아 지역이 견인차 역할

- 일본기업의 해외자회사 수익은 2017년에 과거 최고를 갱신함. 해외에 진출하여 직접 벌어들인 경향이 강하고, 중국이나 ASEAN 각국 등 아시아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전체를 견인했음
 - 해외자회사의 수익을 지역별로 보면, 크게 증가한 것은 중국과 ASEAN 등으로 2017년 1-9월 기간 중 아시아에서의 직접투자수익은 2016년에 비하여 24% 증가, 이에 비하여 미국은 10% 증가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대일 무역적자폭 축소

□ (중 합)

- '18.1월 대일무역적자는 1,878백만 달러로 전월보다 감소
 - 대일수입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임
- '18.1월의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5.0%에서 5.3%로 상승한 한편, 대일 수입의존도는 전월의 11.4%에서 9.8%로 하락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전월의 8.0%에서 7.4%로 하락

< 2018년 1월 대일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 달러,%) >

	2017.12월			2018.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대일 수출	2,468	11.0	-1.7	2,588	21.5	4.9
대일 수입	4,947	9.2	4.8	4,466	18.8	-9.7
무역 수지	-2,479	7.5	12.2	-1,878	15.3	-24.2

자료 :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

- '18. 1월 대일수출은 2,588백만 달러로 전월의 1.7% 감소에서 4.9% 증가로 반전
 - 이는 동 기간 중 총수출 0.4%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7.12월	11.0	-1.7	8.9	-1.2	14.9	4.0
2018.1월	21.5	4.9	22.3	0.4	7.9	1.5

- 전월과 비교하여, 10대 수출품목에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기계요소공구·금형의 대일수입 증가폭이 17.0%로 가장 큼
 - 대일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정밀화학제품과 산업용전자제품의 대일수출 감소폭이 -4.0%로 가장 큼

< 2018년 1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백만 달러, %)

순 위	품목명	2017.12월			2018.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총계	2,468	11.0	-1.7	2,588	21.5	4.9
1	광물성연료	458	12.6	22.5	479	56.8	4.6
2	철강제품	322	20.6	1.9	356	16.5	10.6
3	전자부품	158	-25.5	1.3	155	8.5	-1.9
4	석유화학제품	143	42.7	-5.3	153	26.6	7.0
5	정밀화학제품	150	38.6	-0.7	144	26.0	-4.0
6	산업용전자제품	150	25.2	2.7	144	37.9	-4.0
7	수송기계	109	2.2	-11.4	110	-14.8	0.9
8	기계요소공구·금형	88	14.5	-9.3	103	25.3	17.0
9	농산물	94	17.1	-18.3	92	15.3	-2.1
10	금속광물	85	-5.6	-4.5	88	6.1	3.5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일 수입)

○ '18.1월 대일수입은 4,466백만 달러로 전월비 9.7% 증가

- 동 기간 중 총수입은 전기비 4.7% 증가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7.12월	9.2	4.8	13.6	3.6
2018.1월	18.8	-9.7	21.1	4.7

○ 전월과 비교하여 10대 수입 품목에는 산업기계 대신 전기기기가 포함된 가운데, 전자부품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일수출이 감소

- 수송기계의 대일수입 감소폭이 -31.1%로 가장 큼

< 2018년 1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 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7.12월			2018.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총 계	4,947	9.2	4.8	4,466	18.8	-9.7
1	정밀기계	705	19.7	27.7	666	44.7	-5.5
2	전자부품	552	2.0	-7.7	577	15.0	4.5
3	철강제품	581	18.6	4.9	542	19.2	-6.7
4	정밀화학제품	403	13.1	1.8	380	32.4	-5.7
5	석유화학제품	399	7.4	15.0	371	7.5	-7.0
6	기초산업기계	334	12.6	12.8	241	13.7	-27.8
7	산업용전자제품	296	-1.0	6.9	237	25.6	-20.0
8	플라스틱제품	209	2.0	2.0	171	-2.3	-18.2
9	수송기계	238	6.3	-21.5	164	-14.2	-31.1
10	전기기기	153	4.9	0.7	137	9.2	-10.5

2. 4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급감

□ (동향) '17.4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급감

- '17.4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156백만 달러로 전기비 -82.0%의 큰 폭 감소
 - 건수 면에서는 전기비 10.1% 증가, 이는 건당 투자규모가 적었음을 시사
 - 반면,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액은 전기비 134.6%의 큰 폭 증가
- 그러나 2017년 연간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1,862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비 90.1% 증가,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
 -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는 7.8% 증가한 22,970백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 달러, %) >

	2015		2016		2017.2분기		2017.3분기		2017.4분기		2017.1-4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315 (-10.5)	1,665 (-33.1)	299 (-5.1)	1,246 (-25.2)	98 (42.0)	412 (1.2)	79 (-19.4)	867 (110.4)	87 (10.1)	156 (-82.0)	328 (18.3)	1,862 (90.1)
전체 외국인투자	2,698 (9.5)	20,909 (5.1)	2,987 (10.7)	21,299 (1.9)	655 (3.6)	5,745 (49.2)	640 (-2.3)	3,991 (-30.5)	846 (32.2)	9,361 (134.6)	2,774 (-10.1)	22,970 (7.8)

주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 사례)

- 일본 중견기업 제일시설공업(주)이 부산시에 100억 엔을 투자(2017.12.11 국제신문)
 - 제일시설공업은 산업용 클린이송장치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전 세계 반도체용 클린 이송장치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는 일본의 대표 중견기업으로서, 부산시 미음 외국인투자지역에 9,917㎡ 규모의 생산공장을 신설할 예정
-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11월 22일 스미토모세이카사와 고희수성 수지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8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2017.11.22. 연합뉴스)
 - 스미토모세이카는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기능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일본의 대표적 정밀화학기업임

□ (시사점)

- 국내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의 각종 한일교류채널의 네트워킹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최근 일본 기업들의 해외 투자요인과 사례에 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

V. 참고 자료

주요기관 연구보고서(2018.1월~2018.2월)

□ 국내 기관

-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견해 및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18년 2월 19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42857&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1&menuNav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일본 2017.4/4분기 실질GDP 성장률(속보치), 전기대비 +0.1%』 한국은행, 2018년 2월 14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42790&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2&menuNav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일본 왜 지금 생산성 논란인가』 현대경제연구원, 2018년 2월9일
<http://www.hri.co.kr/storage/newReList.asp>
- 『 일본의 재정수지 현황 및 주요 이슈 』 한국은행, 2018년 2월 9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42722&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3&menuNav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최근의 일본 금융외환시장 동향』 한국은행, 2018년 2월 6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42657&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4&menuNav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일본의 가상통화 과세방안 발표와 반응』 한국금융연구원, 2018년 2월 3일
http://www.kif.re.kr/kif2/publication/pub_list.aspx?menuid=18
- 『일본기업 성과 지속되나』 LG경제연구원, 2018년 2월 1일
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econ/LGERI_Report_20180201_20182001132030315.pdf
- 『일본의 해외플랜트 수주추이와 주요 부문별 시장전략』 산업연구원, 2018년 1월 18일
http://www.kiet.re.kr/kiet_web/index.jsp?sub_num=12&state=view&tab=list&idx=53934&recom=3014&ord=0

□ 일본 기관

- 『부가가치 경제로 이행하는 일본』 미쯔비시UFJ리서치앤드컨설팅』 2018년 2월 21일
http://www.murc.jp/thinktank/rc/quarterly/quarterly_detail/201801_116.pdf
- 『일본계 서비스산업의 해외전개과약 시도』 경제산업성, 2018년 2월 20일
<http://www.meti.go.jp/statistics/toppage/report/minikeizai/pdf/h2amini099j.pdf>
- 『TPP 서명과 금후 전망』 미즈호종합연구소, 2018년 2월 16일
<https://www.mizuho-ri.co.jp/publication/research/pdf/insight/pl180215.pdf>
- 『생산성 향상과 일본경제』 자본시장연구회, 2018년 2월 6일
<http://www.camri.or.jp/files/libs/1035/201802051136036420.pdf>
- 『일본경제의 현황과 과제』 교토은행, 2018년 2월 2일
https://www.kyotobank.co.jp/houjin/report/pdf/201801_02.pdf
- 『일본산업의 인재력 강화를 위한 연구회』 경제산업성, 2018년 1월 30일
http://www.meti.go.jp/committee/kenkyukai/sansei/jinzairyoku/pdf/002_05_00.pdf
- 『IT투자의 결정요인과 효과』 일본생산성본부, 2018년 1월27일
<https://www.jpc-net.jp/study/sd5.pdf>